

버어리종 연초 결순발생의 품종간 차이

정석훈, 조천준¹⁾, 최상주, 조명조, 백종운

한국인삼연초연구원 수원시험장, 전주시시험장¹⁾

결순 발생이 적은 품종(Low Sucker Producing Variety : LSPV) 육성은 결순 제거 노력과 약제비용(Maleic Hydrazide(MH) or Fatty Alcohol(FA)), MH 잔류량을 줄일 수 있고 MH나 FA의 오남용에 의한 품질저하나 내용성분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. 본 연구에서는 LSPV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버어리종(*Nicotiana tabacum* L. var. burley) 12개 품종 또는 계통의 결순 발생수와 중량을 이식 후 45일, 순지른 후 7일과 MH살포 후 10일에 각각 조사하였다. KB 103과 KB 9416-1은 지재부와 지상부의 결순 발생이 적었고 KB 9210-8은 지재부 결순이, KB 9424-17과 (MSTC 613 x KB. 108)F₁은 지상부 결순 발생이 적었다. MH처리 후 10일 조사에서는 품종간 결순 발생량에 차이가 없었다. 이상의 결과로 보아 KB 103, KB 9416-1, KB 9210-8과 KB 9424-17 등은 LSPV 육성의 유전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. 생육특성 중 개화일수는 결순발생량과 유의한 부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LSPV 육성시 선발형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